



제22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2에 전시된 양형석 작가의 '기억의 조각들'

작가들이 수집한 네가지 풍경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2... 10월30일까지 하정웅미술관 조현택·이재석·최수환·양형석 참여...공간 속 무한한 가능성 전달

올해로 22화째를 맞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빛'전은 전국에서 주목할만한 청년 작가를 발굴해왔다. 각 지역 공립미술관 등의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 선정된 작가는 모두 115명. 긴 세월동안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탄탄히 만들어가며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획전은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에 이듬해부터 30여년간, 603점에 이르는 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선생의 메세나 정신에서 출발했다. 그는 특히 청년 작가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밝혀왔고, 미술관은 그에 호응해 '빛'을 주제로 매년 작가를 선정중이다.

오는 10월30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빛2022'전에는 조현택(광주), 이재석(대전), 최수환(경남), 양형석(제주) 네 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선정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직 추천위원들의 작가 추천과 세미나를 통해 결정했다.

'수집된 풍경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사진, 회화, 설치, 도예 등 다채로운 장르를 통해 '네 가지 풍경'을 펼쳐놓는다.

1층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는 사진작가 조현택이다.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했던 조 작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돌조각 판매상의 야간 풍경을 촬영한 스토리텔(2020-2022) 사진 연작을 전시 중이다. 미륵상, 기독교나무의 조각상, 불교 석상, 묘비 등이 어우러진 풍경은 생경하며 한밤중에 촬영한 덕에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더해진다. 촬영 당시 녹음한 주변 소음과 풀벌레 소리가 흘러나오고, 사진을 벽에 완전히 부착하는 대신 허공에 매달아 흔들리게 배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대전 목원대를 졸업하고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석 작가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들을 시각화한 회화 작품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군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작품의 주된 소재가 된다. '중첩된 풍경' 등 작품에 등장하는 '밭'은 군에서 입었던 사고와 관련된 이미지다. 또 군대에서 텐트 치는 과정을 연작 형태로 보여주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그가 찾아낸 직관적 이미지, 일상의 이미지, 기억 속의 이미지들은 한 화면에서 섞이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제주대에서 공예디자인을 전공한 양형석 작가는 제주도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영감을 휴과 불을 이용해 도자작품으로 구현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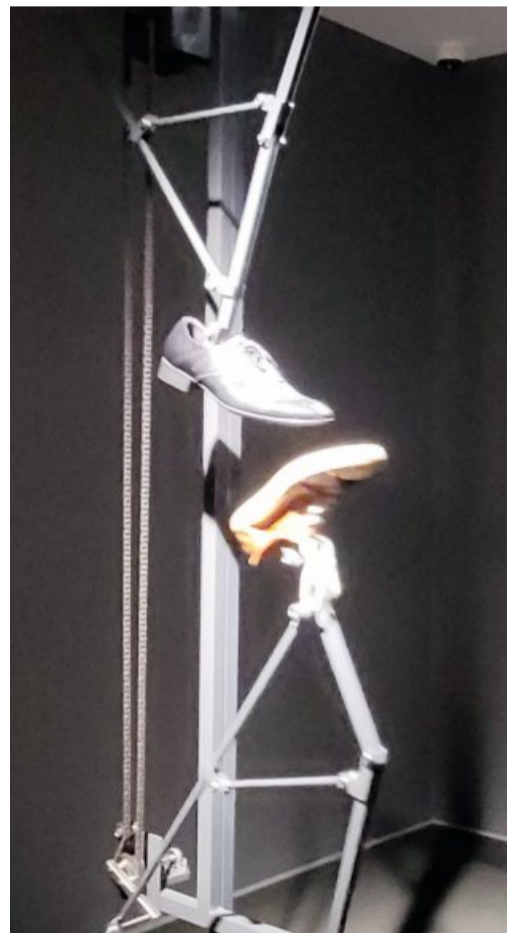
'이면의 창', '기억의 조각들' 등 제각각의 모습과 색깔을 담은 수많은 도자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은 찢기고 상처 입은 내면의 기록이자, 하루 하루의 일상을 기록해 나간 '일기장' 같은 작품이다. 또 제주에서 자라는 나무의 모습을 도자기법으로 재현하기도 하고 '미생의 탑'은 수목에 용암이 흘러 내려와 고사목의 잔류물 무늬를 드러내 세월의 흔적을 표현한 작품이다.

창원대를 졸업하고 독일 칼스루헤와 베를린 미술대학에서 유학한 최수환 작가의 작품은 흥미롭다.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을 변형, 축소해 '재현공간'으로 만드는 그의 작품은 관람자의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 그는 주변의 특별한 풍경, 공간, 경험 등을 다양한 재료와 단순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전시장에 풀어놓는다.

일찍 농치기 쉬운데, 자기장과 모터를 이용해 전시장 입구 쪽 공중에 매달아 놓은 작품 '가위'는 청년들의 불안함을 상징하며 자신이 살았던 마산 회원동의 밤거리와 친구집에서 떼어온 문짝으로

구성한 '함께, 혼자'도 눈길을 끈다. 또 작은 방에 구현된 '경계인'은 베를린 예술대학, 칼스루헤 미술대학, 창원대 예술대학 복음 자신의 흔적이 남은 공간들을 배치한 작품이며 모터를 이용해 자신이 신고 슬하에 걸었던 신발들을 걸어둔 작품 '산책'은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 마치 관람자가 어느 공간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신이 직접 신고 걸었던 신발을 오브제로 삼은 최수환 작 '산책'

모성과 눈물을 노래하는 전숙 시인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시낭송회', 9월1일 시청자미디어센터

"눈물은 태초에 가시었다/ 순한 눈을 지키라고 하느님이 선물로 주셨지/ 발톱을 세워 달려드는 적들을/ 가시는 차마 찌를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투명해서/ 적들의 아픔까지 유리알처럼 보였거든..."('눈물에게' 중에서)

전숙 시인에게 시 쓰기 출발점은 모성이다. 그리고 그 모성의 강에 흐르는 물은 '눈물'이다. 시인에 따르면 "눈물은 측은지심이라는 샘에서 솟아나며 그러기에 눈물은 못 살아있는 것들의 최초의 위로이며 기도의 몸내림"이다.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존재인 '눈물'을 모티브로 하는 시낭송회가 열린다.

광주재능시낭송협회(회장 김귀숙)는 시인과 함께하는 시인 목요시낭송 주인공으로 전숙 시인을 초청했다. 오는 9월 1일 오후 7시 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시낭송회는 소외의 현실 속에서도 사랑을 노래하는 전숙 시인의 작품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모성과 눈물을 노래하는 전숙 시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문화재단과 JETI재능문화 JETI재능교육이 후원한다.

김혜숙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팬플루



이 '모닥불'과 '홀로 아리랑'으로 문을 연다. 탁인석 광주문인협회 회장의 축사를 비롯해 시퍼포먼스 '꽃잎의 흥타'가 펼쳐진다. 시낭송은 '가방끈 엄마' (김미혜), '저녁, 그 따뜻한 허' (박유순)가 진행되며 시인무용단의 무용이 펼쳐진다. 이어 시낭송 '징검다리' (박영미), '아버지의 손' (박향순)이 펼쳐지며 초대 낭송으로 노경호 시낭송가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독립의 무궁화꽃 소녀 이광춘', 현영숙 시낭송가의 '엄마의 강'이 예정돼 있다.

한편 전숙 시인은 "우리는 아프면서 살아간다. 피부병을 한평생 앓는 소나무, 배롱나무는 열사의 태양에 텅 마음의 상처를 꽃으로 피워낸다"며 "그 눈물을 걸러서 심장에서 발효시켜 우련한 시로 빛어내는 일이 저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롯이 자기만의 색깔로...정정하 개인전

9월4일까지 예술공간 집

정정하 작가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건 '색'이다. 페인트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작가는 순수미술 분야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에폭스 레진을 주재료로 활용한다. 빛을 가두는 재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 레진은 페인트 안료로, 빠르게 굳는 특성이 있다.

정 작가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구현해낸 '색의 조각들'은 두툼한 두께감과 자연스러운 흘러감으로 뜻밖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며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여기에 에폭시 레진이 갖는 여러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화면에 뒤섞이며 흐린 듯 선명한 듯 다양한 화면을 표출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여러 점을 나란히 두고 볼 때 더 흥미롭다. 다양한 색을 겹쳐보며 색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고 비정형화된 자연스런 흘러내림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즐길 수 있어서다.

색과 빛에 대한 다양한 변주를 연구해 온 정정하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9월 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전시작은 그의 대표 시리즈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 중 특히 '빛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 30여 점이다.

전시작들은 색과 안료들의 여러 조합,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지점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작품들이다. 다양한 크기의 색 화면들이 조합되기도 하고, 레진의 물성을 활용한 대형 작품 등을 통해 작업의 확장도 모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빛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정 작가는 2021광주시립미술관의 제 21회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빛 2021'에 선정됐으며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도 참여했다.

정 작가는 9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 라운지:일상다반사'전, 11월 대안공간 산수씨리 '아름다운 두려움'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233-3342.

문재권·박재만·신동언·이정재 '예술 동행'

9월4일까지 양림미술관

문재권·박재만·신동언·이정재 화백. 네 명의 작가는 중고등학교 미술부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화가가 된 후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때론 방향하기도 하며 그림과 함께 걸어온 기간이 어느덧 60여년.

광주를 비롯해 충남, 전북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작업하던 오랜 그림 친구들이 광주에서 뭉쳐 전시회를 갖는다.

남구청이 운영하는 양림미술관(광주시 남구 제중로 70) 초대전 '4인 동행'전이 오는 9월4일까지 열린다. 네 명의 작가는 각자의 개성이 담긴 풍경화, 파스텔화, 추상화 등을 선보인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며 작업하는 문재권 작가는 알록달록한 색채로 작업한 '돌아오던 날', '꽃잎'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 작가는 베를린에서 열린 '한지와 유럽의 만남'전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 무진화, 탐희 화원으로 활동중이다.

전북 김제에 작업실을 둔 박재만 한국파스텔화협회 자문위원은 파스텔과 콘테의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을 전하는 작품 '사랑의 스펙트럼', '꽃피는 여인', '옛 추억-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신동언·이정재 작가는 광주에서 활동중이다. 신 작가는 '제주 선인장', '독일 파사우', '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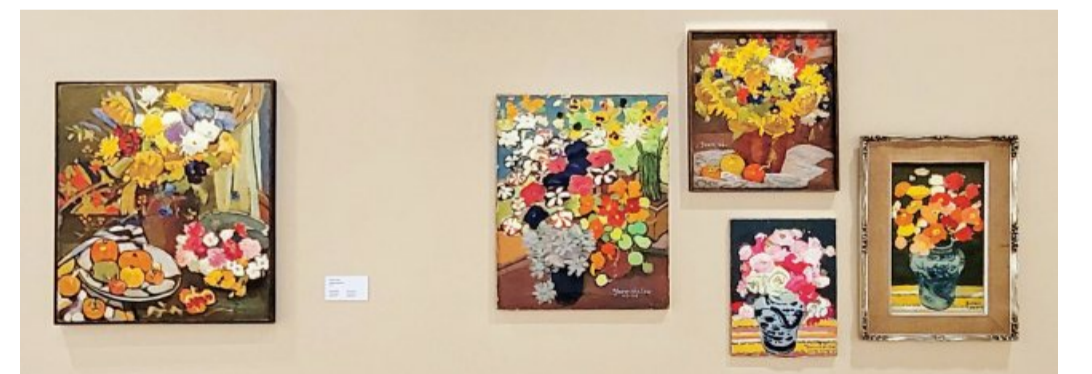
박재만 작 '사랑의 스펙트럼'

등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도시 풍경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유화 작품을 전시하며 이정재 작가는 고향 완도의 바다 풍경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여천 화양마을' 등 푸른빛의 요묘함이 눈에 띄는 작품을 내놓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재권 작 '돌아오던 날'



전남도립미술관, 31일 '윤재우:색 채의 미' 연계 강연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윤재우:색 채의 미' (9월12일까지) 전시 연계 강연을 진행한다. 미술관은남도 서양화단 형성 과정 초기 서양화가로 활동하며 평생을 교육자이자 작가로 활동했지만 화단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굴원(楡園) 윤재우의 작업 세계를 재조명하고 그의 예술적 신념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오는 31일 오후 3시 미술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맡아 진행한다. 윤 작가의 그림을 "자연스럽

고 평화로우면서도 질서정연한 조화로운 작품'이라 평하는 조대표는 '군재 조화의 원색화경 : 윤재우의 회화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윤 작가의 다양한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깊이 있게 감상하고 그의 삶과 시기별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또 윤재우 작가가 화단 활동을 시작하는 40년대 후반의 호남 서양화단 태동기와의 관계, 한국전쟁 직후 서울로 활동지를 옮긴 뒤 야수파와 모더니즘을 결합해 주관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탐구과정을 살펴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